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 예측 변인*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in marriage migrant wives with school-aged children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교 수 성 미 애**
성균관대학교 소비자 가족학과
박사수료 최 여 진

Dep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Sung, Miai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Ph. D candidate Choi, Yeojea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선행 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migrant wives with school-aged children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we draw data from the 2015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NSMF). The target group was marriage migrant wives who were in a first marriage and had school-aged children ($N=3,004$). We used OLS regression to examine the predictors of the target group's life satisfaction with the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rriage migrant wives with school-aged children had maintained their marriage for at least 14 years.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relationships with both their spouses and their children. Also,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spouse's child care roles. They did not support the multi-cultural policy of assimilation. Their Korean proficiency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middle level. More than half had jobs and had not attended a parent meeting. Second, although they were satisfied with

* 본 연구는 2016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주최 통합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성미애(eliza_s@knou.ac.kr)

their everyday lives, thei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were less than that of migrant wives with children below 5 years of age. Third, all variables explained 38.8% of the life satisfaction experienced by marriage migrant wives with school-aged children. Satisfaction with their spouses, subjective health, satisfaction of spouse's child care role, monthly family income,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 experience attending a parents meeting, and Korean proficiency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is target group.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can provide certain implications for family life education and policy within a multi-cultural society.

Key Words :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marriage migrant wives with school-aged children), 학부모 모임 참여(experience attending a parent meeting), 배우자의 자녀양육자 역할만족도(satisfaction with a spouse's child care role), 주관적 건강(subjective health), 한국어 능력(Korean proficiency)

I. 서론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단일민족의 정서가 강한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2016)에 따르면,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은 128,827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152,564명(결혼이민자 남성 23,737명, 여성 128,827명) 중 8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7년 11월에 집계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수인 96,580명(법무부, 2008)에 비해 약 75% 증가한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다문화가족은 82만 가구 내외이나 2020년에는 10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가족 내 자녀수도 증가하여 2007년에는 44,258명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207,693명으로 8년 사이에 약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자녀 중 만 7세 이상의 학령기 자녀가 4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15).

이처럼 다문화가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중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통합은 지금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의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이민족 집단이 형성되어 이루어진 다른 나라의 다문화 현상과는 달리, 혼인을 통해 사적인 가족의 '내부'로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약 84%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민족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젠더 현상(양현아, 2013)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시도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의 존재를 통해 기쁨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부모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결혼이민자 여성으로 하여금 학부모로서 우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있어 자녀의 존재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녀의 학교생활, 성적, 상급 학교 진학, 그리고 교우관계 등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또 다른 적응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국처럼 자녀의 교육과 대학 진학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영역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경우(성미애·최여진, 2015)에는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역할 부담이 만성피로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임혁, 2010). 그리고 결혼이민자 여성의 학부모 역할을 살펴본 연구들(고은미, 2009; 남부현·김옥남, 2012; 전홍주·배소영·곽금주, 2008 등)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부터 언어, 자녀 학습, 자녀 교육, 학교 준비물과 같은 것에 대해 걱정하며, 학부모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계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살펴본 연구(송선화·안효자, 2011)에서도 결혼이민자 여성은 외국인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자녀양육에서 혼자 양육자 역할을 해야 하는 문제, 언어 문제,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 지원의 부족, 문화적 장벽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단일 범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범주 내에서도 다양성을 인식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한편, 생활만족도는 현재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나 평가라는 정서적 차원 외에 삶 전반에 대한 판단이라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가족학뿐만 아니라 많은 학문 분야에서 개인의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잘 보여주는 변수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Pavot & Diener, 1993). 따라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어떻게 이주국인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연수·박지영, 2010; 김은경, 2008; 김은경, 2010; 원서진·송인옥, 2011; 이영분·이유경, 2010)에서도 주로 이들의 적응, 결혼만족도, 생활만족도 등을 살펴보았으나 아직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으로 한정해서 살펴본 연구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맥을 이으면서도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연관되는 개인 특성 변인(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성, 취업유무, 월평균가구소득), 부부 특성 변인(결혼지속년수, 배우자관계만족도, 부부간 대화시간, 배우자의 자녀양육자 역할만족도), 자녀 특성 변인(자녀관계만족도, 학부모모임 참석경험), 그리고 한국사회 적응 특성 변인(한국문화동화, 한국어수준)으로 나누어서, 어떤 변수들이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예측 요인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예측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는 이민 온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많아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통

합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실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연구는 우리나라에 결혼이민이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살펴본 연구들(서홍란·김기연·김양호, 2008; 이지영, 2012; 함진옥·조인주, 2012; Sung & Byun, 2013),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나 부부 및 친·인척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김은경, 2008; 김은경, 2010; 김현숙·김희재·오중환, 2011; 김현실, 2011; 남부현·오정아, 2013; 박재규, 2009; 양성은·이미영, 2011; 이영분·이유경, 2010), 그리고 사회적 지지나 사회통합 정책을 살펴본 연구들(성미애, 2011; 이은주·전미경, 2013; 이호경, 2010; 전경옥, 2007)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맥을 이으면서도 이 분야의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생활 및 성적, 상급 학교 진학, 그리고 교우관계 등과 관련해서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은 부모의 관심이 요구된다(성미애, 2015). 특히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경우 공교육을 통해 차세대 인재를 키운다는 생각보다는 개별 가족의 교육

열에 의존하는 제도적 가족주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장경섭 외, 2013),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학부모로서의 역할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자녀 교육 및 진학과 생활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어머니에게 전가하기 때문에(성미애, 2015), 결혼이민자 여성의 부담이 높을 수 있다.

실제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교육 실태를 살펴본 연구들(전홍주 외, 2008; 남부현·김옥남, 2012)을 보면, 결혼이민자 여성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부터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자녀의 언어, 학습, 학교 준비물 마련 등에 대해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 일반 학부모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은 상대적으로 미숙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며, 자녀 교육에 소극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쉽고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이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어가 능숙한 경우에도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한 경험이 없고,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 한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이라는 인과적 조건들에 의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상환·한광훈, 2011).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자녀의 교육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생활만족도는 특정 시점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긍정적인 상태에서부터 부정적인 상태로 삶을 평가할 수 있다(Buetell, 2006). 생활만족도는 인간 복지의 주된 측면으로 고려되며(Jan & Masood, 2008), Diener(1984)는 생활만족도를 웰빙을 측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척도(생활만족도,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보았다. OECD 보고서(2013a,

2013b)에서도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변수라고 밝혔다.

이처럼 생활만족도는 인간발달의 전 단계를 망라해서 주요한 삶의 세계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들을 고찰해서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들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이용 여부와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연구(김경미, 2013)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여부는 지역모임 및 시민단체 참여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생활만족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정체성과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장은애·최영, 2010)에 따르면, 동화 유형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주변화, 분리, 통합 유형의 결혼이민자 여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이들의 한국어수준, 거주 지역, 결혼기간, 월평균가구소득 등의 변수가 생활만족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만족도를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연구(김경미, 2012)에 따르면, 결혼이주 초기에는 가족연결망이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혼이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다른 사회연결망의 효과가 유의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일본 출신의 경우 비(非)가족 모임 연결망이 생활만족도와 유의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출신국에 따라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연구(Sung et al., 2013)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인 특성, 가족 특성, 지역사회 특성, 사회적 특성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특성 변수가 생활만족도와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 예측 변인

1) 개인 특성 변인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한 개인 특성 변인은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성, 취업유무, 월평균가구소득이다. 교육수준은 학력 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 자체로 삶의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고등교육을 학습한 경우에는 삶에 대해 보다 융통성 있는 가치를 갖게 한다(성미애, 1999). 그리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교육의 경험이 자녀교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은 학령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실제 결혼이민자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정주연, 2008)에서도 고졸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여성의 사회적 관계와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박미정·엄명용, 2009)에서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되는 변인을 메타분석한 연구(공은화·신유경, 2016)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여성의 교육수준이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에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건강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성미애·최여진, 2015). 그러므로 생활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건강은 자녀 교육이나 지원을 일상적

으로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이때 건강은 객관적인 지표에서 검증된 것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여성의 건강과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공은화·신유경, 2016)도 있는 만큼,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취업은 부모 역할, 아내 역할을 수행할 때 역할 긴장을 일으켜,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인한 갈등, 피로 누적, 시간 부족으로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주애란, 2011)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은 곧 낮은 생활만족도와 관련될 수 있다. 실제 결혼이민자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과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김경미, 2012)에 따르면, 현재 취업해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할축적이론(Marks, 1977)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은 생활의 기쁨과 만족, 그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을 확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오는 만큼, 생활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은 학령기 자녀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확대시키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월평균가구소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직접적인 자원이 되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특히 자녀가 학령기에 있을 때에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월평균소득 수준은 결혼이민자 여

성의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실제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나 실태를 살펴본 연구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김희경, 2010; 원서진·송인욱, 2011; 허철행·임경숙, 2012)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상당수의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결혼이민을 선택했으나 현재의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본국에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연구(김진희·박옥임, 2008)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갈등이 많을수록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알아본 연구(정주원·조소연, 2016)에서도 가구소득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월평균소득은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2) 부부 특성 변인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선정한 부부 특성 변인은 결혼지속년수, 배우자관계만족도, 부부간 대화시간, 배우자의 자녀양육자 역할만족도이다. 결혼지속년수는 결혼이 지속된 기간을 말한다. 결혼지속년수가 결혼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그 기간만큼은 결혼생활에 적응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연구들(박정숙·박옥임·김진희, 2007; 원서진·송인욱, 2011)도 있는 만큼,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에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배우자관계만족도는 기혼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클 것이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가족 이외의 사적인 공동체를 찾기 어려운데, 이 때 부부 관계는 본국과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이민생활에 적응할 때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정기선·한지은, 2009; 설동훈·이계승, 2011). 특히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있어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자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이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세대 내 통합이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초가 되는 만큼, 배우자관계만족도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심도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Mace & Mace, 1976). 즉 언어를 매개로 한 소통은 부부간 충분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부부간 소통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어느 시기보다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 부부간 소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인식하는 부부간 대화시간은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이 될 것이다.

배우자의 자녀양육자 역할만족도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인 자녀양육과 교육을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인식하는 배우자의 자녀양육자 역할만족도는 이들의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이 될 것이다.

3) 자녀 특성 변인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선정한 자녀 특성 변인은 자녀관계만족도, 학부모모임 참석경험이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대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다(임연옥·윤현숙·황지성, 2016). 특히 자녀의 존재는 부모에게 정서적 충족감을 제공하

며, 결혼이민자 여성에게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갖는 만족도는 이들의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이주하고, 진입하면서 가족, 친구 등 기존에 자신이 형성하고 있던 사회적 관계와 물리적 거리를 가지게 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김이선 외, 2011). 이런 연유로 한국 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양순미, 2010).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학부모 모임은 학령기 자녀로 인해 새롭게 생성되는 자연스러운 관계로,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한다(배경희, 2013). 또한 실제적으로 학령기 자녀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학부모모임 참여는 이들의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4) 한국사회 적응 특성 변인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선정한 한국사회 적응 특성 변인은 한국문화동화와 한국어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이민자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이민자가 강한 모국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과 긍정적으로 관련되며, 일방적으로 이주국 문화에 적응할 것을 강요받을 때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Liebkind, 1996; Ward & Ranm-Deuba, 1999; 문선숙·김창희·심미경, 2009)과, 반대로 이민자가 강한 이주국 문화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심리적 안녕과 긍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권복순·차보현, 2006; Amit, 2010)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적응과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연구(이영분·이유경, 2010)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여성이 모국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 생활에 대

한 민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와 관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결혼이민자 부부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정주원·조소연, 2016)도 있다. 한편,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이주국에서의 동화 문제와 자신의 정체성 문제가 겹쳐서 나타난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문화동화 수준과 생활만족도 간 관련성을 실증적 연구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언어는 기본적인 소통의 수단으로써, 한국어수준은 이민국인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과 연결된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어 사용능력의 부족은 가족원을 이해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소통의 단절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어수준은 학령기 자녀의 학업 지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적용할 때 여러 장애 요인을 줄이기 때문에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을 살펴본 연구(양순미, 2006)에 따르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가 적을수록 결혼이민자 여성의 적응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알아본 연구들(공은화·신유경, 2016; 정주원·조소연, 2016)에서도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어사용 능력이 부부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결혼이민자가 더 높은 이혼 의향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설동훈·이계승, 2011)도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어수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결과로서, 학령기 자녀가 있

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어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고찰하고자, 전국에 걸쳐 대규모로 실시된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6)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전국의 다문화가족 27,120가구 표본 중 17,84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17,849가구 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총 17,109명, 배우자 총 15,540명, 만 9-24세 자녀 총 6,07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은 학령기 자녀가 있고, 초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있고,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이민을 온 여성이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결혼이민자 여성 중 초혼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학령기 자녀가 있는¹⁾ 결혼이민자 여성 3,0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생활만족도 척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만족도는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1)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학령기 자녀의 유무를 질문한 문항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는 문항 중 학부모 역할을 질문한 문항인 ‘귀하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다음 중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택 1)’라는 질문에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학교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자녀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어려워서’, ‘기타’, ‘어려움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로 간주하였다.

당신은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합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불만족’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 응답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인 특성 변인

개인 특성 변인으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성, 취업유무, 월평균가구소득의 4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을 0점, ‘대졸이상’을 1점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성은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나쁘다’ 1점에서부터 ‘매우 좋다’ 5점까지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유무는 ‘하고 있는 주된 일은 어떤 일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1점, ‘일하지 않았다’ 0점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월평균가구소득은 ‘지난 1년 동안 가구 전체의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100만원 미만’ 1점, ‘700만원 이상’ 8점까지 연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부부 특성 변인

부부 특성 변인은 결혼지속년수, 배우자관계만족도, 부부간 대화시간, 배우자의 자녀양육자 역할만족도의 4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결혼지속년수는 ‘현재의 배우자와 언제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배우자관계만족도는 ‘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1점,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부간 대화 시간은 ‘귀하는 배우자와 하루 평균 얼마나 대화를 합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 1점, ‘30분 미만’ 2점, ‘30분에서 1시간 미만’ 3점, ‘1시간에서 2시간 미만’ 4점, ‘2시간 이상’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대화 시간이 많음을 의미한다. 배우자의 자녀양육자 역할만족도는 ‘당신의 배우자는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자녀양육자 역할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자녀 특성 변인

자녀 특성 변인은 자녀관계만족도, 학부부모임 참석경험의 2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자녀관계만족도는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부부모임 참석경험은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학부모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음’ 1점, ‘없음’ 0점으로 코딩하여 이분변수로 사용하였다.

5) 한국사회 적응 특성 변인

한국사회 적응 특성 변인은 한국문화동화, 한국어수준의 2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한국문화동화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자기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 6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어수준은 ‘귀하의 한국어 실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전혀 못 한다’ 1점에서부터 ‘매우 잘 한다’ 5점까지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또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 특성 변인, 부부 특성 변인, 자녀 특성 변인, 한국사회 적응 특성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관계 및 분산팽창지수(VIF)를 검토하여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는 모두 2미만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모든 변수를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이상의 통계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전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대상자의 전반적 경향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주관적 건강성(범위: 1-5 점/중간값=3점)은 평균 3.71점($SD=.91$)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즉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결혼지속년수는 평균 13.58년($SD=4.26$)이었다. 배우자 관계만족도(범위: 1-5점/중간값=3점)는 평균 3.69점($SD=1.00$)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중간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자녀양육자역할만족도(범위: 1-5점/중간값=3점)는 평균 3.71점 ($SD=.97$)으로, 배우자의 자녀양육자 역할에 대해 중간 수준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계만족도(범위: 1-5점/중간값=3점)는 평균 4.29

점($SD=.81$)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동화(범위: 1-6점/중간값=3.5점)는 평균 3.46점($SD=1.47$)으로, 한국문화나

<표 1> 연구대상자의 전반적 경향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n = 3,004)	
	M	SD
주관적 건강성(1-5)	3.71	.91
결혼지속년수	13.58	4.26
배우자관계만족도(1-5)	3.69	1.00
배우자의 자녀양육자역할만족도(1-5)	3.71	.97
자녀관계만족도(1-5)	4.29	.81
한국문화동화(1-6)	3.46	1.47
한국어수준(1-5)	3.85	.90
	n	%
교육수준		
고졸	1910	63.6
대졸이상(=1)	1094	36.4
취업유무		
취업(=1)	2147	71.5
미취업	857	28.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77	4.1
100-200만원 미만	384	20.6
200-300만원 미만	625	33.5
300-400만원 미만	443	23.7
400-500만원 미만	207	11.1
500-600만원 미만	86	4.6
600-700만원 미만	26	1.4
700만원 이상	20	1.1
부부간 대화시간		
전혀 없음	72	2.4
30분 미만	721	24.0
30분-1시간 미만	1079	35.9
1-2시간 미만	599	19.9
2시간 이상	533	17.7
학부모모임 참석경험		
있음(=1)	1408	46.9
없음	1596	53.1

관습에 따르기 위해 자신의 문화를 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수준(범위: 1-5점/중간값=3점)은 평균 3.85점($SD=.90$)으로, 중간수준 이상의 한국어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는 과반수(63.6%)가 ‘고졸’이며, 과반수(71.5%)는 취업을 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33.5%)’, ‘300-400만원 미만(23.7%)’, ‘100-200만원 미만(20.6%)’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평균이 4,373,000원(통계청, 2016)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평균 정도의 월평균가구소득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간 대화시간의 경우 ‘30분-1시간 미만(35.9%)’, ‘30분 미만(24.0%)’, ‘1-2시간 미만(19.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과반수(53.1%)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 만족도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범위: 1-5점/중간값=3점)는 평균 3.57($SD=.96$)으로, 중간 이상 수준으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동일한 조사 자료에 있는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집단(평균 3.89/표준편차 .91)과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보다 낮았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13.99, p<.001$). 즉 동일하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표 2〉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 수준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n = 3,004)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n = 4,388)		t
	M	SD	M	SD	
생활만족도 수준(1-5)	3.57	.96	3.89	.91	-13.99***

3.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 만족도 예측 변인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델에 투입한 개인 특성 변인, 부부 특성 변인, 자녀 특성 변인, 한국사회 적응 특성 변인은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38.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1.33, p<.001$).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는 배우자관계만족도($\beta=.38, p<.001$), 주관적 건강성($\beta=.19, p<.001$), 배우자의 자녀양육자역할만족도($\beta=.13, p<.001$), 월평균가구소득($\beta=.11, p<.001$), 자녀관계만족도($\beta=.10, p<.001$), 학부모모임 참석경험($\beta=.05, p<.01$), 한국어수준($\beta=.04, p<.05$)순이었다. 즉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 이민자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배우자의 자녀양육자역할에 만족할수록,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경우, 한국어를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 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 예측변인

	학령기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n = 3,004)		
	B	SE B	β
개인 특성 변인			
교육수준	-.01	.04	-.01
주관적 건강성	.20	.02	.19***
취업유무	-.00	.04	-.00
월평균 가구소득	.07	.01	.11***
부부 특성 변인			
결혼지속년수	.01	.00	.04
배우자관계만족도	.37	.02	.38***
부부간대화시간	.02	.02	.02
배우자의 자녀양육자역할만족도	.12	.02	.13***
자녀 특성 변인			
자녀관계만족도	.11	.02	.10***
학부모모임 참석경험	.10	.04	.05**
한국사회 적응 특성 변인			
한국문화동화	.02	.01	.04
한국어수준	.05	.02	.04*
<i>Constant</i>		-.93	
<i>F</i>		91.33***	
<i>R</i> ²		.388	
<i>R</i> ² Δ		.384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6) 자료의 응답자 중 초혼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학령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결혼이민자 여성 3,004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령기 자녀가 있

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며, 현재 배우자와 평균 약 14년 정도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자녀양육자 역할에도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역시 만족한다. 한국문화나 관습에 따르기 위해 자신의 문화를 버려야 한다는 동화주의는 지지하지 않으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중간 이상을 보인다.

이들의 과반수는 고졸이고, 대다수는 취업을 하고 있다. 월평균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으며, 하루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부부간 대화를 나눈다. 한편, 학령기 자녀가 있음에도 이들의 과반수는 학부모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약 14년 정도의 결혼생활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은 보통 이상이 되며,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면서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일과 자녀교육을 양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부모 모임 참여 등 학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문화 동화주의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은 현재 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같은 자료의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낮다. 즉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있어 학부모 역할과 경험은 일반적인 부모 역할과는 다른 차원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한국어가 능숙한 경우에도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한 경험이 없고,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 한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이라는 인과적 조건들에 의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현실(성상환·한광훈, 2011)이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도 적용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부모의 위치는 결국 결혼이민자 여성이 본인의 생활만족 수준을 평가할 때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배우자의 자녀양육자역할에 만족할수록,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학부모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있

는 경우, 한국어를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 이처럼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배우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관계와 본인의 건강,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양육 역할을 공유하는 것은 생활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즉 배우자와 자녀는 그야말로 이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이 되며, 정서적 충족감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의 토대가 되는 월평균가구소득 수준은 가족 내 경제적 갈등을 낮추면서(김진희·박옥임, 2008)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건강은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이 되며, 생활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성미애·최여진, 2015),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부모모임 참여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되며, 실제로 학령기 자녀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민국에 동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민국의 언어에 능숙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이 되며,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한국어 능력은 자녀의 학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생활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배우자는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정기선·한지은, 2009; 설동훈·이계승, 2011)가 본 연구에서도 지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학부모 모임은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연구결과(배경희, 2013)가 본 연구에서도 지지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가 적을수록 결혼이민자 여성의 적

응 수준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양순미, 2006)도 본 연구에서도 지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볼 때,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이민자 여성의 배우자에 방점을 둔 맞춤형 생활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일반 가정에서도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 역할 참여가 중요하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속한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교육에서의 아버지의 참여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배우자는 정서적 지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안전망이 되는 만큼,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교육의 역할에 공동 책임을 지면서 부부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배우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이 자녀의 학부모 모임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때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일반 학부모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한 경험이 없고 한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자녀교육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부모 모임이 이들을 배제하는 장이 아니라 소통과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다문화 인식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어 구사능력은 이민국 문화에 대한 동화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소통의 기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주기나 관심 분야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초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에도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다수가 취업자인 것을 고려하여 물리적, 시간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다양한 원

격교육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이러한 정보를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다수가 취업자임을 감안해서 가족의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일-가족 균형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역시 일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역할 긴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일반적인 가족친화정책의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연구결과를 적용할 때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횡단적 연구 설계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련성은 충분히 파악하였으나 이들 변수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결혼이민자 여성이 한국의 학부모로, 배우자 및 어머니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주관적 인식을 밝혀내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자의 대표성은 확보하였지만, 패널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 관련된 변수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사회성이나 건강 등 자녀 특성 변수와 결혼이민자 여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내 복지시설 이용 정도나 국가별 자조 모임 참여 정도 등 다양한 특성의 변수를 추가해서 이들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해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해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들을 구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이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결혼초기 적응에 대한 초점에서 나아가 자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많은 만큼, 학령기 자녀

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할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부록 1〉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생활만족도	1												
2. 교육수준	.06**	1											
3. 주관적 건강성	.35***	.03	1										
4. 취업유무	.02	-.01	.08***	1									
5. 월평균가구소득	.24***	.16***	.15***	.14***	1								
6. 결혼지속년수	-.03	.12***	-.19***	-.01	.01	1							
7. 배우자관계만족도	.54***	.08***	.24***	-.01	.18***	-.03	1						
8. 부부간 대화시간	.25***	.01	.14***	.02	.06**	-.06*	.37***	1					
9. 배우자의 양육자역할만족도	.38***	.05*	.23***	-.03	.15***	-.14***	.41***	.27***	1				
10. 자녀관계만족도	.27***	-.01	.18***	.04*	.06**	-.16***	.20***	.12***	.36***	1			
11. 학부모모임 참석경험	.14***	.10***	.06**	-.07**	.09***	.06*	.12***	.13***	.05*	.06**	1		
12. 한국문화동화	.04	-.09***	-.01	.00	-.05*	.05*	.01	-.00	.03	-.00	.04	1	
13. 한국어수준	.18***	-.07	.17***	-.00	.13***	.15***	.14	.10***	.08***	.12***	.12***	.01	1

* $p < .05$. ** $p < .01$. *** $p < .001$.

【참 고 문 헌】

- 1) 고은미(2009). 학교 가정 통신문을 활용한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독해 자료 구성 방안 연구. 국어문학, 46, 5-32.
- 2) 공은화 · 신유경(2016).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 만족도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756-765.
- 3) 권복순 · 차보현(2006). 농촌지역 코시안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 4) 김경미(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2), 185-208.
- 5) 김경미(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이용과 한국사회 적응. 정보사회와 미디어, 25, 1-27.
- 6) 김연수 · 박지영(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적응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 269-297.
- 7) 김은경(2008).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83-94.
- 8) 김은경(2010). 경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 상호작용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12.
- 9) 김이선 · 민무숙 · 김경미 · 주유선(201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 김진희 · 박옥임(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 결혼이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 11) 김현숙 · 김희재 · 오중환(2011).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의 질의 결정요인: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27-51.
- 12) 김현실(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20(2), 188-198.
- 13) 김희경(2010).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유형분석. 여성연구, 78, 119-158.
- 14) 남부현 · 김옥남(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질적 연구 -수도권의 고학력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113-142.
- 15) 남부현 · 오정아(2013).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가족관계 경험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131-154.
- 16) 문선숙 · 김창희 · 심미경(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및 도움요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3(1), 101-112.
- 17) 박미정 · 엄명용(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6.
- 18) 박재규(2009).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남편의 가족생활 적응 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6, 137-163.
- 19) 박정숙 · 박옥임 · 김진희(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20) 배경희(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1, 33-54.
- 21) 법무부(2008).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07년 11월 호).
- 22) 법무부(2016).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11월 호).
- 23) 서홍란 · 김기연 · 김양호(2008).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21-143.
- 24) 설동훈 · 이계승(2011).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학, 13(1), 117-147.
- 25) 설동훈 · 이혜경 ·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26) 성미애(1999).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7) 성미애(2011).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한·미 비교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63-81.
- 28) 성미애(2015). 핏줄 의식과 다문화 사회, 최연실 외(2015). 한국가족을 말한다, 서울: 하우출판사.
- 29) 성미애·최여진(2015). 학령기 자녀와 함께 사는 분거 가족 기혼 여성의 스트레스 관련 변인 고찰. 가족과 문화, 27(4), 89-111.
- 30) 성상환·한광훈(2011). 도서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언어문화 실태 조사 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227-249.
- 31) 송선화·안효자(201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0(2), 167-179.
- 32) 양성은·이미영(2011). 도서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이해도와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251-284.
- 33)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3), 223-252.
- 34) 양순미(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233-263.
- 35) 양현아(2013).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실험. 저스티스, 134(2), 298-335.
- 36) 여성가족부(2016).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37) 원서진·송인욱(2011).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95-113.
- 38) 이영분·이유경 (2010). 거주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분화 및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145-157.
- 39) 이은주·전미경(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 메타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125-141.
- 40) 이지영(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17(2), 105-125.
- 41) 이호경(2010).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대책 현황과 문제점: 여성이민자기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4(9), 187-207.
- 42) 임연옥·윤현숙·황지성(2016). 노인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0, 1-28.
- 43) 임혁(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89-221.
- 44) 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2013).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5) 장은애·최영(2010).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정체성 유형과 생활만족도. 사회과학연구, 26(3), 1-25.
- 46) 전경옥(2007). 젠더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아시아여성연구, 46(1), 7-42.
- 47) 전홍주·배소영·곽금주(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이 실제와 의미: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9(3), 161-186.
- 48) 정기선·한지은(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49) 정주연(2008).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복지학연구논총, 1, 228-262.
- 50) 정주원·조소연(2016).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문화 및 언어수용태도와 사회관계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지, 27(2), 185-197.
- 51) 주애란(2011). 맞벌이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0(2), 221-229.
- 52) 통계청(2016). 2015년 연간 가계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3/index.board?bmode=read&bSeq=&aSeq=35167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53) 함진옥 · 조인주(2012).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 · 사회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4(3), 65-97.
- 54) 행정자치부(2015). 2013년 외국인 주민 현황.
- 55) 허철행 · 임경숙(2012). 다문화가정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4), 201-228.
- 56) OECD.(2013a). 웰빙의 측정 2013.
- 57) OECD.(2013b). 주관적 웰빙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 58) Amit, K.(2010).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from Western countries and from the FSU in Isra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3), 515-534.
- 59) Buetell, N.(2006). Life satisfaction, a sloan work and family encyclopedia entry. InSloan work-family encyclopedia (pp. 1125 - 1127). Boston, MA: Boston College. <http://workfamily.sas.upenn.edu/glossary/life-satisfaction-definition>.
- 60)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NY.
- 61) Diener, Ed.(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62) Jan, M. & Masood, T.(2008). A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among women. Studies on Home and Community, 2(1), 33-42.
- 63) Liebkind, K.(1996). Acculturation and str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2), 161-179.
- 64) Mace, D. & Mace, V.(1976). Marriage enrichment: A preventive group approach for couple. In D. H. Olson(Ed), Treating relationship. Lake Mille, Iowa: Graphic Publishing Company, 321-338.
- 65) Marks, S. R.(1977). Multiple roles and role strain: some note on human energy, time and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4): 921-936.
- 66) Pavot, W. & Diener, Ed.(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 67) Sung, M. & Byun, J.(2013). Factors associated with marital conflict for baby boomer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4(1), 103-113.
- 68) Sung, M., Chin, M., Lee, J. & Lee, S.(2013). Ethnic variations in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ife satisfaction of migrant wives in South Korea. Family Relations, 62(1), 226-240.
- 69) Ward, C. & Ranm-Deuba, A.(1999).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revisit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422-442.

- 투 고 일 : 2016년 12월 1일
- 심 사 일 : 2017년 1월 11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2월 16일